

착공 3년 장흥 '파크골프장' 잡초만 무성

20억 들여 탐진강 고수부지 조성 토목공사·잔디식재만 한 채 방치 설계·기반조성 부실공사 지적도

장흥 탐진강 고수부지에 조성중인 '파크골프장'이 착공한지 3년이 되도록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공사 설계부터 기반조성에 이르기까지 부실공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탐진강 환경정비 사업과 병행해 추진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장흥읍 평화리 탐진강 고수부지 내 3만5000㎡ 부지에 18홀 규모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2019년 착공했지만 준공예정 시점을 넘기고도 현재 담보상태에 머무르면서 지역 파크동호회원들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해당 지자체인 장흥군이 지역 파크동호회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익산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애초 총 20억원을 들여 지난 2019년 11월 착공 지난해 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기반시설(토목공사)과 잔디식재만 해놓은 상태에서 T박스, 그린조성과 사무실,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올 연말까지 사업이 연장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0·11월께 조성해 놓은 토목공사



장흥 탐진강 고수부지에 조성중인 '파크골프장'이 착공한지 3년이 되도록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돼 있다.

와 페어웨이(골프장 코스)가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마사토(흙) 투입도 하지 않은 채 기존 자갈땅에 졸속으로 조성됐으며, 잔디조성에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바람에 고사하고 잡풀만 무성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장흥 탐진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 해당 지자체인 장흥군이 지역 파크동호회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익산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통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지 토

질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잔디를 식재하면서 고사현상이 나타났다"며 "다시 토지평탄작업 후 재식재와 함께 그린조성, 주차장 등 모든 부대시설을 갖춰 연말 안으로 장흥군에 관리전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와 영암, 영광, 함평 등 4개군이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지역 파크골프동호회(회장 신동운)는 지난 2018년에 결성돼 117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글·사진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 텃밭 수확 채소 나눔

나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미니 케어팜' 사업 운영 눈길

나주시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이 텃밭에서 직접 가꾼 쌈 채소를 영산동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에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부터 생산적인 농업 활동과 치매 케어 서비스를 접목시킨 '치유해요! 힐링해요! 미니 케어팜'(Care Farm)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치매 어르신의 자존능력 보존과 신체·정신적 치유에 중점을 두고 70세 이상 정상군 노인, 치매환자, 인지저하 노인을 그룹으로 매칭해

맞춤형 텃밭 활동을 지원한다. 어르신들은 텃밭 활동을 통해 쌈 채소류와 계절별 모종 심기, 풀 뽑기·비료 작업, 꽃길 가꾸기 등을 추진한다.

특히 수확한 작물은 매달 독거·치매노인 가구에 전달하며 참여 어르신들의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있다.

서현승 나주시보건소장은 "미니케어팜은 고위험군 어르신의 인지 강화와 치매 예방, 우울감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 나눔의 주체로서 자존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안식처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화순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서비스

화순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측정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화순군은 지역 내 이륜자동차 검사시설 부재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출장 검사 서비스를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75대다.

검사 일정은 ▲24일 화순읍·이서면(화순고인돌 전통시장) ▲26일 오전 도암면·춘양면(도암면행정복지센터), 오후 이양면·정곡면(이양면행정복

지센터) ▲27일 오전 동북면·백아면(동북면행정복지센터), 오후 동면·사평면(동면행정복지센터)이다.

검사 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다. 정기검사 대상자는 이륜차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고 안내 받은 시간과 장소에 나가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수수료는 1만5000원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안에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10억 송이 장성 황룡강 꽃 아름답게 지킨다

주민 교육으로 배출된 옐로우시티 시민정원사 '홍길동무 꽃길축제' 봉사

장성 옐로우시티 시민정원사들이 '장성 황룡강(洪)길동무 꽃길축제' 기간 꽃 지킴이로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장성 황룡강(洪)길동무 꽃길축제'는 30년 역사의 홍길동 축제와 10억 송이 황룡강 꽃을 접목시킨 장성의 대표 봄 축제다.

축제의 주인공은 강변을 화려하게 수놓은 봄꽃이지만 이를 가꾸고 관리하는 일은 시민정원사의 몫이다. 관광객이 몰릴 경우 강변길마다 사진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칫 꽃밭이 훼손될 수 있는데 이들 시민정원사들이 자발적으로 축제기간 꽃 지키기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관리 구간은 많은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안교-황미르랜드 입구와 힐링허브정원 아래, 문화대교-서삼정미터널 등이다. 관람객들이 정원 안으로 들어가거나 꽃을 꺾지 않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아기가기한 꽃들로 조성된 포인트정원도 꼼꼼하게 챙긴다.

옐로우시티 시민정원사는 장성 곳곳에 자리잡



옐로우시티 시민정원사들은 '장성 황룡강(洪)길동무 꽃길축제' 개막일보다 1주일 앞서 지난 14일부터 현장을 찾아 꽃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장성군 제공>

은 마을 정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조정 전문가다.

장성군은 2020년부터 지역민에게 정원 조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옐로우시티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1기 43명, 2기 28명의 정원 전문가가 배출됐다. 올해 3기 교육까지 마치면, 목표로 한 100명의 시민

정원사 육성이 완성된다.

시민정원사들은 도로변 경관과 황룡강 포인트정원 조성 등 장성군의 조경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번에는 축제 개막일보다 1주일 빠른 지난 14일부터 현장을 찾아 일찌감치 꽃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천지물, 햇양파·미니밤호박 반짝 할인전

함평쌀·건강증·겉절이 등도

함평군 농특산물 소품몰 '함평천지물'에서 햇양파·미니밤호박 반짝 할인전을 진행한다.

함평군에 따르면 햇양파, 미니밤호박 수확 절을 맞아 함평천지물에서 23일부터 특별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

함평의 대표 특화작물인 햇양파를 이달 23일부터 3일간 중(中) 4900원, 대(大) 5500원이라는 착한 가격에 만나 볼 수 있으며, 미니밤호박은 26일부터 1kg 8500원에 판매된다.

이번 행사는 함평천지물 회원에 한해 1인당 1건으로 구매수량이 제한되며, 상품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이밖에 함평쌀, 건강증, 겉절이 등이 이달 말까지 할인 판매되며, 3만 원 이상 구매 후 후기를 남긴 회원에게는 추첨을 통해 할인쿠폰 또는 나비쌀(4kg)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할인전은 함평의 우수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 공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경 기자 hsy@kwangju.co.kr

강진군, 과수농장 피해 외래 해충 공동방제

강진군이 기후변화에 따라 과수농장에 피해를 주는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 돌발해충에 대한 농경지 및 산림지 공동방제에 나섰다.

군은 해충 방제에 적기인 약충기(5월20일~6월20일)를 외래 돌발해충 공동방제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련부서와 과수농장 및 인근 산림지를 대상으로 중점 방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과수농장 및 산림지에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은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다. 이 해충은 산림의 나무에서 기생하다 인접 농경지

로 옮겨 과수 줄기의 즙액을 빨아서 생장을 저해하고 그을음병을 유발해 과실 품질을 떨어뜨리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돌발해충 발생추이 조사 결과 발생 시·군이 점차 늘고 있어 적극적인 방제 조치가 필요하며 과수원만 방제하는 경우 해충들이 인근 산림지로 옮겨갔다가 약제 효력이 떨어지면 다시 농경지로 침범하기 때문에 농경지와 산림지 공동방제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